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성경: 요한복음 6장 26-35절

Tag:

〈찬양예배〉

제목 : 사울과 요나단 성경: 사무엘상 14장

Tag:

사무엘상 14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 프레임으로서의 사울의 퇴위 원인에 대한 이해

사울의 퇴위 원인

1. 사무엘의 세심하지 못한 지도 (갈등 요인 방치, 정권의 어설픈 이양. 지극히 작은 정부-왕권 초기의 사사형 통치, 완전히 이양되지 않은 카리스마-사무엘에게 지나치게 의존된 카리스마(또는 법궤에 의존함). 사울은 이 카리스마를 가져오지 못함-사무엘이 뺏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벌어들이지 못함(정권 창출의 댓가지불이 미흡함. 태조 이성계와 이승만)-사사시대의 한계, 카리스마의 보편적 기근 상황. 사무엘과 사울의 왕권에 대한 지식의 부족.)

-성경 전체적으로(특히 사무엘상), 사무엘은 잘못된 것이 없고, 사울은 잘못된 것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울의 잘못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사소한 것들임. (다윗의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다만 정권의 역학관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2. 사울의 지나친 소심함; 하나님 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 함. 모든 왕권의 최후의 보루(하나님의 보호)를 확보하지 못함.-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정립이 불분명함.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맞서지 않음. 누군가의 신앙심에 의존함.(사무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됨. 끝까지 사무엘의 뒤에 숨고, 후일에는 다윗의 뒤에 숨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울.

삼상 14장 당시는, 하나님과의 두터운 관계는 사무엘에게 의존하고, 백성에 대한 왕권 카리스마는 요나단과 다윗에게 의존한 상태.

3. 요나단의 지나친 대범함 (둘 다 위험함)

-요나단으로서는 차기 왕권 주자로서 전쟁상황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돌파한 유일한 존재.

-왕의 소심함 때문에 빚어진 사태. 백성들은 우왕 좌왕.(통치력 상실-왕권하에서는, 이 통치력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함.)

-아버지의 소심함을 잘 아는 요나단, 차선의 선택으로 지나친 대범함을 선택함.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행동. 위험을 감수하고 나선 요나단.

*요나단을 도우신 하나님. 15절.

*뜻밖의 복병 히브리 사람 21절. -전쟁은 하나님의 것.

*사울의 금식 명령. 24절. -사울의 오버액션. 자신의 소심함을 감추기 위함.

*사울의 두 번째 오버액션. 이 밤에 쉬지 말고 블레셋의 뒤를 쫓자. 36절. 37절-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그쳤어야 한다. 대답하지 않으심이 대답.

*사울의 세 번째 오버액션. 수사와 시비를 파해치려는 집요함.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다른 곳에서 잘못을 찾으려는 충동. 그러나 결국 요나단이 적발됨. 이와 같은 현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울 자신이 적발된 것 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됨. 이 사건이 두고 두고 사울 자신의 정신적 충격이 되었을 것임. 자기분열. 자기분열은 누군가의 충동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분열임.

-겸손하고, 솔직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지어다.

*그러나 사울은 40년간 집권했고, 대체적으로 왕의 직무를 잘 수행했음.